

# 도서관과 정보 센터의 기능 비교

—A Comparison of the Function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

존 W. 머어도크 공저  
찰즈 A. 브로피 2세  
金 斗 弘 역

역자 주 : 이 글은 Battelle Memorial Institute의 경제·정보 연구부 차장인 John W. Murdock 씨와 동 연구소 사서장(司書長)인 Charles A. Brophy, Jr. 씨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Library Trends* 지(誌)의 1966년 1월호 pp. 347—352에 게재될 것을 옮긴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 센터의 차이에 대하여, 요긴한 점을 지적하였고, 또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 호감이 가서 번역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며, 또한 취급된 정보 센터는 어떤 기관에 부설된 전문별 정보 센터에 한정되어 있고, 종합적 또는 독립적 정보 센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서, 아쉬운 감을 들게 하였다.

배틀리 연구소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것에 속하는 한 개의 과학기술 도서관과 13개의 정보 분석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양자(兩者)가 수행하는 상이한 기능으로 인하여 이들은 서로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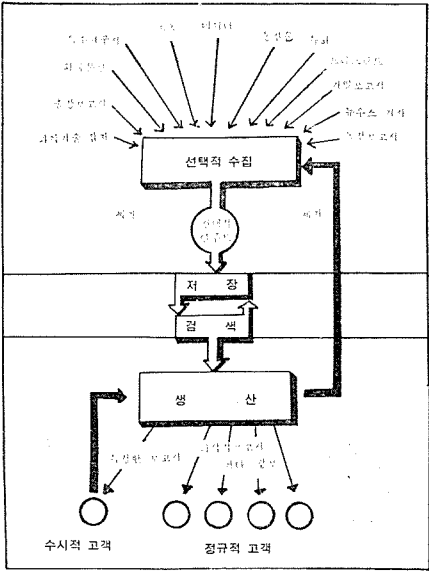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각자의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른 데 있다. 과학기술 도서관은 배틀리 연구소에 있어서와 같이 화학, 물리, 공학 등에서 식품공학, 생물학, 심리학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제공할 임무를 갖는다. 이에 반하여, 정보 분석 센터는 보통 한 분야 또는 몇몇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면, 배틀리 연구소에는 국방용 금속, 동(銅), 코발트, 원자 지역의 분광, 연료전지(燃料電池), 포장, 복사효과(輻射效果) 등과 같은 분야를 각각 전공하고 있는 정보 센터들이 있다.

도서관과 정보 센터의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면, 도서관에서는 그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그 원형대로 제공하거나, 이를테면 완전한 한 권의 단행본(單行本)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또는 필름에 수록된 자료 따위가 그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보 분석 센터가 제공하는 최종 자료는 단행본, 잡지, 특허,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센터에서 생산해 낸 어떤 분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기술실황 보고서(state-of-the-art report) 따위이다.

정보 센터에 수장(收藏)된 정보자료는 보통 축약(縮約)된 형식 즉, 카이드 철(綴), 필름, 판치 카이드, 또는 테이프와 같은 형식들을 취하고 있다. 정보 센터에

서는 단행본,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의 대규모 집서(集書)를 보유하는 데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까닭은 이러한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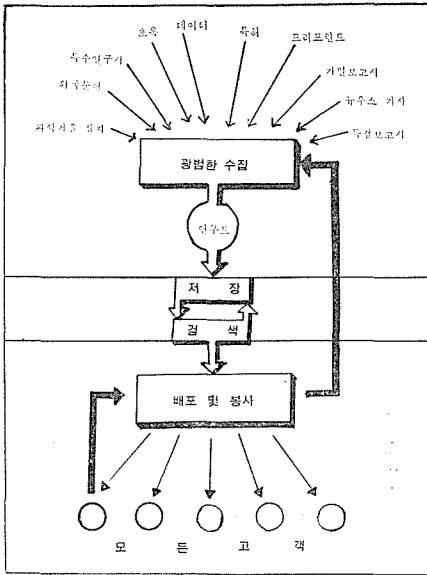
정보 센터와 도서관의 차이에 대하여 도설(圖說)한 것을 <그림-1>과 <그림-2>에서 볼 수 있다. 정보 센터의 주요 기능은 <그림-1>에 나타나 있고, 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그림-2>에 나타나 있다.



<그림-1> 과학정보 센터의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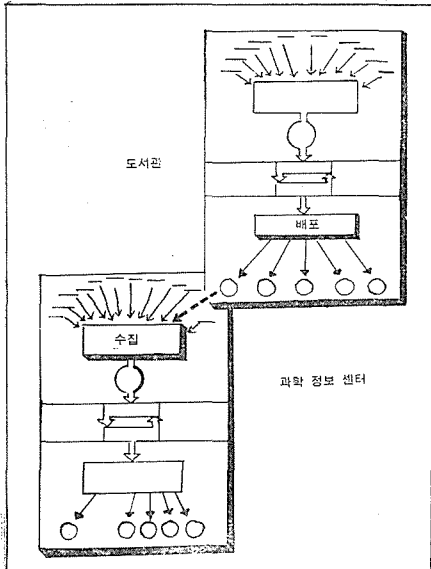
수집, 저장, 검색 및 고객에 대한 봉사를 하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되고 있다. <그림-1>에 있어서 “생산”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정보 센터 특유의 중요 기능이다. 전문가들이 정보를 평가, 분석하여 해석된 기록물을 생산하는 곳이 이 부문이다. 사실상,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부문인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 센터는 양자가 다 자료의 수집업무를 수행한다. 사서(司書)는 세계의 서지적 도구(書誌的道具)에 익숙하여,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의 출판물을 감정하고, 소재를 알아내고, 수집을 행한다. <그림-3>에서 도설한 바와 같이 도서관은 정보 센터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 지원의 정도는 정보 센터의 요구



<그림-2> 도서관의 주요 기능

에 따라서 달라진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정보 센터를 가진 배틀리 연구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수집 상의 지원이 필요불가결하다. 배틀리 연구소의 경우를 보면, 정보 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수집활동을 한 달에 수백 건(件)씩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3> 과학정보 센터에 대한 도서관의 주요 지원

이러한 수집활동 외에 정보 센터에서는 그 특유한 수집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정보 센터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원거리 출장에 내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아주 발표되지 않

는 것도 있다. 그리고 저자(著者)와 면담을 한다든가 대학·회의·학술대회·시험장·실험실·시험시설·설계 실험소 및 생산공장 등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외국과 통신을 교환한다든가 하는 따위가 정보 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독특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수집 활동은 정보 센터가 어떤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되었을 경우 그 수익성(收益性)이 확인될 때, 또는 매우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그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 센터는 다 같이 정보자료의 색인(索引)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양자 간에 절차 상의 차이가 있다. 도서관은 보통 단행본에 대하여 저자별(著者別), 서명별(書名別), 주제별(主題別) 색인을 작성한다. 그러나, 극히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잡지 기사를 색인하거나 초록(抄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규모가 큰 과학기술 도서관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에게 여러 면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잡지 기사를 색인하고 초록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집중 팔구는 필요한 모든 색인지(索引誌)나 초록지(抄錄誌)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해결을 짓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 종사하는 정보 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분야의 잡지를 입수하는 즉시로 그 기사에 대하여 초록을 작성하거나, 그것은 정보 센터의 성격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센터는 잡지 기사에 대한 누가색인(累加索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검색을 능률적으로 적시(適時)에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 센터의 처지로 보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정보 센터의 수는 날로 늘어갈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도서관과 정보 센터 사이의 관계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배틀리 연구소 내에 정보 센터가 존재함으로써 그 도서관의 운영방식에 조금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업무를 포함한 모든 부서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업무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보 센터와 도서관은 양자가 다 기계화 및 자동화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경비가 합당하고, 기계화로 인하여 운영상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에 도서관과 정보 센터는 다 같이 기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